

2025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읍시다. 특별히 ‘한국 교회 축성 생활의 해’(2024년 11월 21일-2025년 10월 28일)를 맞아 교회 안에서 각별한 봉헌의 삶을 선택한 축성 생활자들을 위하여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입당성가 : 473번 세상의 빛이시며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말라키 3장 1절-4절

화답송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 독서 : 야고보서 4장 13절-15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2장 22절-40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 성 체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봉헌하러 성전에 가셨다가, 평생 주님을 섬겨 온 시메온과 한나 예언자를 만나십니다. 시메온은 예수님께서 걸으실 길을 예언하며, 성모님의 영혼이 예리한 칼에 찢리듯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길은 축복의 길이지만, 수고와 고난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6번 ‘온 세상이 주님을’

2025년 2월 9일 / 연중 제5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께서는 깨끗하지 못한 우리 입술과 강하지 못한 우리 손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활동을 성령으로 이끄시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세상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입당성가 :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 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 6장 1절-2절, 3절-8절

화답송 :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5장 1절-11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5장 1절-11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51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 성 체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깊은 데로 배를 저어 나가 그물을 내린 베드로 사도는, 결과를 보고 몹시 놀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6번 ‘이끌어 주소서’

2025년 2월 16일 / 연중 제6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제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곳곳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가난한 이들과 박해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어, 분열을 일으키는 폭력과 이기심의 멍에를 벗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여 새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성가 :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 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 17장 5절-8절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5장 12절, 16절-20절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6장 17절, 20절-26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영 성 체 :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38번 ‘행복하여라’

2025년 2월 23일 / 연중 제7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외아드님을 통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밝혀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도 축복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입당성가 : 25번 '사랑의 하느님'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사무엘 상권 26장 2절, 7절-9절, 12절-13절, 22절-23절

화답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5장 45절-49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6장 27절-38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봉 헌 : 45번 '참 사랑'

영 성 체 :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흠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온 첫 인간 아담과 달리 하늘에서 오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46번 ‘우리는 주의 사랑을’